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주민참여 방안

이강민* · 김수봉** · 정응호**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I. 서론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NGO(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정부와 시장을 대치하는 공공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NGO(혹은 Non Profit Organization)가 공공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가치수호, 그리고 정부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서부터 NGO가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이제 NGO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정부, 시장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이근주, 2000).

또한, 사회구조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되어감에 따라 NGO 활동 또한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고, 현사회가 고소득, 고학력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행정적 참여 욕구 증대로 인하여 NGO의 영향력이 차츰 확대되어 민주화에 따른 참여와 사회적 욕구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나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도 증대되어 시민단체의 활동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소비자보호, 여성,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 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운미, 2004). 따라서 NGO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면 NGO가 각종 행정계획의 입안·집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참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성현찬,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이 NGO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방행정에 있어서 NGO 역할 및 참여도를 얼마나 느끼고 있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의 시민을 상대로

한 의식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여러 NGO 중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환경 NGO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의 대구시 환경 NGO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환경 NGO의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구시 환경 NGO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민참여 변수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시 7개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1개 군(달성군) 주민들이고,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에 등록된 환경 NGO 수가 2005년 기준으로 북구 1개, 달서구 5개, 남구 6개, 중구 9개, 수성구 7개, 서구 3개, 동구 4개, 달성군 0개로 총 34개 정도가 되고 등록되지 않은 환경 NGO 수까지 합하면 많은 수의 환경 NGO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표본의 선정은 본 연구의 모집단인 대구지역에서 선정하였으며, 대구시 2005년 인구통계 연보를 사용하여 구별 인구를 조사하고 대구시 등록된 환경 NGO의 수에 따라 다시 각 구별 표본의 수를 선정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은 대구시 환경 NGO 인지도 부분, 주민참여 인지도 부분, 대구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부분, 신상에 관한 정보로 총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표는 신뢰도 95% 수준에 허용오차 ±5%를 적용하여 400부의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5년 12월 1일 ~ 2005년 12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학생 생활 기록카드의 주소를 근거로 하여 대구광역시 전역에 걸쳐 고르게 거주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재학생 40명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볼 때 환경계획학과 학생들이 조사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간단한 환경 NGO에 대한 교육 및 설문 내용의 동기와 요지를 숙지하게 한 후 조사원 1인당 10~15매씩 총 400부의 설문조사표를 학생들이 거주하는 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구별인구수 및 연령에 비례하여 배포한 후 설문조사표 371매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표의 회수율은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기재하였거나 식별이 어려운 설문지 11매를 제외한 (회수된 설문지 수 / 배포 설문지 수 - (불성실한 설문지 수 + 알아보기 힘든 설문지 수)) (de Vaus, 1991) 95.3%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한 주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및 개인신상과 설문조사 각 항목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95% 신뢰도수준 5% 유의확률로 분석하였다.

Ⅲ. 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대구시 환경 NGO에 회원 가입 여부의 개인적인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1%(202명), 43.9%(158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37.2%(134명), 30

대 20.6%(74명), 40대 21.9%(79명), 50대 13.6%(39명), 60대 이상 6.7%(24명)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가 8.6%(31명), 고졸 40.6%(146명), 전문대 졸 17.2%(62명), 대졸 31.4%(113명), 대학원 이상 2.2%(8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는 사무직이 18.6%(67명), 전문직 10.3%(37명), 생산직 8.1%(29명), 서비스업 8.6%(31명), 판매 및 자영업 13.9%(50명), 공무원 3.1%(11명), 주부 15.8%(57명), 학생 21.7%(78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인 45.6%(1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4.2%(123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8%(57명), 400만원 이상 4.4%(16명)로 나타났다.

2. 환경 NGO 인지도

본 조사에서는 대구시민들의 환경 NGO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에게 간단한 환경 NGO의 개념 정도를 설명함으로써 환경 NGO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상자라도 쉽게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환경 NGO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모른다' 14.2%(51명), '모른다' 32.5%(117명)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23.1%(83명), '약간은 알고 있다' 24.7%(89명), '잘 알고 있다' 5.6%(20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NGO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인 '들어본 적 없다'의 응답이 전체 응답 중 46.7%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환경 NGO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환경 NGO의 홍보 부족 및 교육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 항목에 대해 응답자 신상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환경 NGO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p -value : .000)에서 환경 NGO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환경 NGO의 인지도가 높았고, 최종학력에서는(p -value : .000) 중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고졸 순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직업의 경우(p -value : .000) 주부, 서비스업, 공무원, 판매 및 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학생, 전문직 순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p -value

: .013)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순으로 환경 NGO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의 성별, 거주 지역에서는 환경 NGO 인지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환경 NGO의 인지도는 연령의 경우 20대, 30대 및 40대에서는 환경 NGO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과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비슷한 반면 50대, 60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매우 높아 연령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있었고, 최종학력에서도 대학원 이상, 대졸, 전문대졸의 경우 환경 NGO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과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비슷한 반면 중졸 이하, 고졸에서는 '모른다'의 응답자가 더 많아 학력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서도 전문직, 사무직, 학생의 경우와 주부, 서비스업, 공무원, 판매 및 자영업, 생산직에서의 인지도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 중에서 학생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대구시에 환경 NGO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냐는 대구시 환경 NGO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 16.1%(51명), '보통이다' 30.3%(109명), '모른다' 53.6%(193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6%의 응답자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환경 NGO의 인지도가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구시 환경 NGO 인지도에 대한 응답자 개인신상과의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서는(p -value : .046) '알고 있다'의 응답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의 경우(p -value : .030) 주부, 판매·자영업, 서비스업, 학생,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생산직 순으로 대구시 환경 NGO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구, 수성구, 북구, 남구, 달성군, 달서구, 중구 순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거주지역에 따른 인지도는 거주지역에 있는 환경 NGO의 수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구시 환경 NGO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알고 있다, 보통이다)에 한하여 대구시 환경 NGO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TV·라디오'가 31.7%(51명), '신문, 잡지' 22.4%(36명), '인터넷' 26.1%(42명), '환경단체강좌' 1.9%(3명), '교육' 12.4%(20명), '환경책' 5.6%(9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해 알게 되는 경로는 방송매체 및 인쇄매체, 인터넷에서 많이 접했다는 응답을 하여, 환경 NGO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경 NGO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 및 인쇄매체, 인터넷을 통하여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한 좀 더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활동 사항 및 그 성과 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환경 NGO 인식경로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는(p -value : .000) 20대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의 경우 TV·라디오에서, 60대의 경우 신문·잡지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p -value : .016) 중졸 이하 및 고졸, 대졸에서는 TV·라디오, 전문대 졸에서는 신문·잡지 및 인터넷에서, 대학원 이상에서는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의 경우(p -value : .000) 사무직, 판매·자영업, 전문직, 공무원은 신문·잡지라고 응답하였고, 주부의 경우 TV·라디오에서, 학생은 인터넷에서 환경 NGO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은 TV·라디오 및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였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및 그 이상에서는 신문·잡지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별 응답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TV·라디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한 인식 경로 역시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 환경 NGO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방송매체, 인쇄매체 및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민들에게 대구시 환경 NGO 정보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민참여 인지도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인지

도 및 주민참여의 경험,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또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 실시 전 간단한 주민참여의 개념 정도를 설명하고 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주민참여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있다' 26.4%(95명), '보통이다' 45.8%(165명), '모르겠다' 27.8%(100명)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의 경우(p-value : .027) 여성보다는 남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의 경우(p-value : .003) 중졸 이하, 전문대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거주지역의 경우(p-value : .000) 서구, 남구, 달성군, 동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 중구 순으로 주민참여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개인 신상에서는 주민참여 인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행정 및 다른 행정에 있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민참여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 13.3%(48명), '없다' 86.7%(312명)로 나타나 주민참여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참여의 인지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구시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9.2%(69명),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46.4%(167명), '그저 그렇다(보통이다)'가 17.8%(64명), '주민참여 필요 없다' 6.4%(23명), '모르겠다' 10.3%(3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5.6%로 나타나 대구시민들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항목에 대해 개인 신상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p-value : .016) 여성보다 남성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의 경우(p-value : .000)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순위는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p-value : .011)에

서는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주민참여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업에서는(p-value : .000) 생산직, 판매·자영업, 주부,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업, 학생 순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4)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구시 환경 NGO에 의견 제시' 16.4%(59명), '본인이 직접 의견 제시' 10.0%(36명), '주민 자치 모임' 38.6%(139명), '공청회·설명회 모임' 22.8%(82명), '언론에 제시' 12.2%(44명)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환경 NGO가 시민들의 대표 및 대변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에 참여하기 전 환경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청회·설명회를 주도적으로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환경 NGO에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대구시 환경 NGO에 주민참여 방안

1) 대구시의 원활한 환경행정 수립에 있어서 환경 NGO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적 대답이 49.4%(178명),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42.2%(152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8.3%(30명)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환경 NGO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표 1과 같이 조사되었다.

2) 대구시 환경 NGO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

표 1. 대구시의 원활한 환경행정 수립에 있어서 환경 NGO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필요하다	178	49.4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152	42.2
필요하지 않다	30	8.3
합계	360	100.0

표 2. 대구시 환경 NGO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중요하다	189	52.5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134	37.2
중요하지 않다	37	10.3
합계	360	100.0

하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하다'가 52.5%(189명),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37.2%(134명), '중요하지 않다' 10.3%(37명)으로 표 2와 같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민들의 주민참여 욕구가 높고 또한 환경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NGO의 중요성 및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구시 환경 NGO들이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서는 '참여 활동하고 있다' 11.4%(41명),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74.2%(267명), '참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14.4%(52명)로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들 중 대부분이 대구시 환경 NGO가 시민대표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대구시 환경 NGO들이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 활동을 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서는 '환경 NGO의 전문성 함양' 26.9%(97명), '일반 회원의 확보' 33.3%(120명), '환경 NGO 운영 재정 확충' 22.8%(82명), '조

표 3. 대구시 환경 NGO들이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41	11.4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267	74.2
참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82	14.4
합계	360	100.0

표 4. 대구시 환경 NGO들이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 활동을 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환경 NGO의 전문성 함양	97	26.9
일반 회원 확보	120	33.3
환경 NGO 운영 재정 확충	82	22.8
조직정비	61	16.9
합계	360	100.0

조직정비' 16.9%(61명)로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비율이 고르게 나타났으나, 일반회원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대구 시민들 역시 대구 환경 NGO가 시민들의 대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대구시 환경 NGO로부터 모금 및 가입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모금 및 가입 권유 받아 가입하였다' 1.7%(6명), '모금 및 권유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8.6%(31명), '모금 및 가입 권유 받은 적 없다' 89.7%(323명)로 표 5와 같이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모금 및 가입 권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환경 NGO에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모금 및 가입권유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대구시 환경 NGO로부터 모금 및 가입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환경 NGO에서 가입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대구시 환경

표 5. 대구시 환경 NGO로부터 모금 및 가입권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모금 및 가입 권유 받아 가입하였다	6	1.7
모금 및 권유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31	8.6
모금 및 가입 권유 받은 적 없다	323	89.7
합계	360	100.0

표 6. 대구시 환경 NGO에서 모금 및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8	8.4
환경 NGO에 가입은 하나 활동은 하지 않겠다	47	14.1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다	175	52.4
가입할 생각이 없다	84	25.1
합계	334	100.0

NGO에서 모금 및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의 질문을 다시 한 결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의 응답비율이 8.4%(28명), '환경 NGO에 가입은 하나 활동은 하지 않겠다' 14.1%(47명),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다' 52.4%(175명), '가입할 생각이 없다' 25.1%(84명)로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대구시 환경 NGO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환경 NGO에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환경 NGO에 시민참여 유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대구시 환경 NGO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시 환경 NGO는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참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는 방송매체 및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 NGO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 참여 인지도를 높이되, 시민들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구시 환경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환경행정에 대한 정보나 대구시 환경문제를 이슈화 하여 작게는 환경문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의 주민자치모임을 유도하고 환경 NGO가 자치모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크게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구시 환경행정입안·계획·집행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회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위 첫 번째, 두 번째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환경 NGO 스스로가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가두 회원모집이나, 방송매체, 인쇄매체 및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모집을 하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고운미 (2004) 환경 NGO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1): 105.
2. 성현찬 (2002)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 공무원과 도민의 설문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11(1): 38.
3. 이근주 (2000) NGO 실패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연구-환경 NGO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1): 291.
4. De Vaus, D. A (1991) Surveys in Social Research(Third Edition) London: UCL Press. p. 107.
5. 대구시 통계연보 (2005)